

# 황산벌전투의 신라군 전투서열 연구

- 신라군의 투입부대, 지휘관, 병력수 -

윤 일 영\*

1. 서 론
2. 신라군의 전투부대 수 및 명칭
3. 황산벌전투에 투입된 전투부대 명칭
4. 황산벌전투시 전투부대의 지휘관 성명 및 투입 병력수
5. 결 론

## 1. 서 론

황산벌전투는 신라군과 백제군이 660년 음력 7월 9일(양력 8. 20) 황산원(黃山原)<sup>1)</sup>에서 벌인 전투다. 당시 황산벌전투 경과는 다음과 같다. 660년 음력 6월 21일 신라군은 황산벌전투에 앞서 중간 집결지였던 금돌성<sup>2)</sup>과 삼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전쟁사교수

- 1) 『삼국사기』 권 제36 잡지 제5 지리 3 熊州條에 의하면 黃山郡은 본래 백제 黃等也山郡이었는데, 경덕왕이 개칭했다. 고려 때 連山縣이다. 현 논산시 연산면이다.
- 2) 『동사강목』 제4(상) 경신년 신라 태종 7년 여름 6월 : 왕이 기뻐하며 다시 법민을 보내어 유신 및 품일 흠춘과 함께 정병 5만을 거느리고 응전하게 하고 금돌성(경북 상주시 尙東面 白華山)으로 나가 주둔하였다.

년산성(三年山城)에 전투부대들을 집결시킨 상태였고, 당의 함대도 덕물도와 그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다. 신라는 덕물도에서 당나라 소정방군과 연합작전계획을 합의하였다.<sup>3)</sup> 양군은 계획에 따라 660년 7월 10일 백제의 남쪽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sup>4)</sup>

이러한 계획에 의거 중간집결지에서 대기중이던 신라 전투부대들이 출동했다. 당나라군과 만나기로 약속한 진구(津口)<sup>5)</sup>를 향해 행군했다. 중간집결지-오늘날 옥천-금산-탄현(全北 完州郡 雲州面 三巨里)-황산-논산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진구<sup>6)</sup>는 사비성 부근이었다. 신라와 당나라의 두 군대가 진구에서 합류하면 백제 군대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한 병력이 된다. 때문에 백제군은 나당연합군이 진구에 집결하기 전에 신라군을 먼저 각개격파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 전투는 신라군과 백제군 모두가 반드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결전적(決戰的) 회전(會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전투는 백제 계백장군과 5,000결사대가 절망적 상황 하에서도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죽음으로 보여주고 무인으로써 지조와 충절을 지킨 전투로 유명하다. 그리고 신라 반굴과 관창이 화랑정신을 보여준 싸움으로도 이름 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사 측면에서 잘 알려진 싸움이기는 하지만 군사사 측면에서 피아가 어느 정도의 병력과 부대들을 투입하여 어떠한 전투편성으로 어떻게 전투를 벌였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문화사적 측면에서는 많은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사사

3) 윤일영, 「신라군의 행군과 군수」, 『군사학연구』 통권 제6호, 대전대 군사연구원, 2008, 31~40쪽.

4)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7년 6월 21일, “王遣太子法敏 領兵船一百艘 迎 定方 於德物島 定方謂法敏曰 吾欲以七月十日至百濟南與大王兵會屠破 義慈 都城.”

5) 『삼국유사』 권 제1 기이 제1, 太宗春秋公, “進軍合兵薄 津口 灑江屯兵.”

6) 필자 주(註) : 진구(津口)는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江景邑)과 성동면(城東面)일대이다. 삼국사기는 당나라군이 진구에 상륙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당나라 소정방의 대군이 함대를 정안시켜 상륙할 수 있는 공간은 지형적으로 길고 넓은 강변(오늘날 금강)이어야 한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을 갖춘 곳은 금강(錦江)과 논산천(論山川)이 만나는 합류점 일대의 강변 및 벌판이다.

측면에서 전투실상을 복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적인 고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신라군이 백제지역 및 황산벌 전투장에 투입하였던 전투부대의 수 및 명칭, 지휘관의 성명, 총 병력 수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신라가 황산벌 전투장에 투입한 부대들의 전투서열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라 및 백제군의 전투배치와 작전개념, 전투경과를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다.

## 2. 신라군의 전투부대 수 및 명칭

신라가 황산벌 전투장에 투입한 전투부대를 식별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는 신라군의 장군인사기록을 분석하여 참전 지휘관과 휘하 부대를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는 신라가 대백제전에 전투부대를 투입하였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분석하여 당시 6정급(六停級)부대<sup>7)</sup>, 서당급(誓幢級)부대<sup>8)</sup>, 10정급(十停級)부대<sup>9)</sup> 가운데 어느 것을 황산벌 전장에 투입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7) 六停級部隊은 신라가 王京과 各州의 治所에 배치하였던 부대들이다. 대당·상주정·한산정·하주정·우수정·하서정·귀당을 뜻한다. 이 부대들은 重步兵부대였던 黑衣長槍末步幢을 주력부대로 하고 重騎兵인 步騎幢과 경보병인 軍師幢을 혼성시킨 합동부대이다. 6정급부대의 편제병력수는 각 부대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어 大幢은 4,763명, 上州停은 3,753명, 下州停은 3,548명 등이다.

8) 誓幢級部隊은 신라가 양왕에 배치시킨 誓幢과 郎幢을 지칭한다. 이들 부대는 신라가 통일 후 各州에 誓幢級부대를 배치할 당시 기본모델이 된 부대들이다. 이 부대들은 黑衣長槍末步幢을 주력부대로 하고 輕騎兵인 著衿騎幢과 經步兵인 軍師幢을 혼성시킨 합동부대이다. 誓幢級부대의 편제 병력수는 誓幢의 경우 5,762명이며 낭당의 경우 5,562명이다.

9) 十停級部隊은 신라가 各州의 요충지에 배치하였던 일명 三千幢이라고 칭하였던 부대였다. 신라는 통일 후 십정급부대를 10개 보유하였으나 660년 당시에는 7개 부대(율리화정·삼랑화정·소삼정·남천정·골근내정·벌력천정·이화혜정)였다. 10정급 부대의 편제 병력수는 3,012명이었다.

### (1) 대백제전에 투입한 전투부대 수 및 명칭

신라가 660년 7월 나·제전쟁 때 백제지역에 투입한 부대명칭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라가 보유하고 있던 부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백제지역에 투입한 부대들을 식별해 내야 한다.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와 열전에 보이는 단위부대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신라는 660년 음력 7월 나·제전쟁을 전개할 당시 총 36개 단위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즉, ① 시위부(侍衛府), ② 귀당(貴幢), ③ 법당(法幢), ④ 경여갑당(京餘甲幢 : 법당 15개로 구성), ⑤ 소경여갑당(小京餘甲幢 : 법당 16개로 구성), ⑥ 외여갑당(外餘甲幢 : 법당 52개 또는 68개로 구성), ⑦ 여갑당(餘甲幢 : 법당 15개로 구성), ⑧ 외법당(外法幢 : 법당 51개로 구성), ⑨ 사자금당(師子衿幢), ⑩ 수군(水軍) ⑪ 대당(大幢), ⑫ 상주정(上州停), ⑬ 한산정(漢山停), ⑭ 우수정(牛首停), ⑮ 하서정(河西停), ⑯ 하주정(下州停), ⑰ 서당(誓幢) ⑱ 낭당(郎幢), ⑲ 음리화정(音里火停), ⑳ 삼량화정(參良火停), ㉑ 소삼정(召參停), ㉒ 남천정(南川停), ㉓ 골내근정(骨乃斤停), ㉔ 벌력천정(伐力川停), ㉕ 이화혜정(伊火兮停), ㉖ 급당(急幢), ㉗ 계금당(鬪衿幢), ㉘ 사천당(四千幢), ㉙ 군사당(軍師幢), ㉚ 백관당, ㉛ 노당(弩幢), ㉜ 운제당(雲梯幢), ㉝ 충당(衝幢), ㉞ 석투당(石投幢), ㉟ 한산주궁당(漢山州弓幢), ㊱ 하서주궁당(河西州弓幢) 등 36개였다.<sup>10)</sup>

아울러 신라는 660년 7월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들 36개 단위부대 중에서 나·제전쟁 때 백제지역에 20개 단위부대를 투입하였는데, ① 대당, ② 귀당, ③ 상주정, ④ 하주정, ⑤ 서당, ⑥ 낭당, ⑦ 남천정, ⑧ 음리화정, ⑨ 삼량화정, ⑩ 소삼정, ⑪ 이화혜정, ⑫ 계금당, ⑬ 군사당, ⑭ 노당, ⑮ 운제당, ⑯ 충당, ⑰ 석투당, ⑱ 사자금당, ⑲ 시위부, ⑳ 수군 등이다.<sup>11)</sup>

10) 윤일영, 「신라가 대백제전(서기 660년) 투입하였던 부대수, 병력수, 부대편제, 전투대형」 『군사학연구』 제5호,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2007, 413쪽

11) 윤일영, 앞 논문, 2007, 425쪽.

## (2) 황산벌 전투장에 투입한 전투부대 수 및 명칭

신라가 무열왕 7년(660) 7월 나·제전쟁 때 백제지역에 20개 단위부대를 투입하였다면 7월 9일 황산벌 전투장에는 몇 개의 단위부대를 투입하였을까?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7월 9일 황산벌 전투를 전후하여 신라가 대백제전 때 전투부대를 투입하였던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3개 사례 중 첫째는 신라 진평왕 46년(624) 10월 백제군이 속함성(速含城) 등을 포위했을 때 신라군 투입부대의 사례다([A-1], [A-2]). 둘째는 무열왕 7년(660) 7월 9일 황산벌 전투 때 전투부대를 투입하였던 사례다. 그리고 무열왕 8년(661) 2월 백제 부흥군이 사비성을 공격할 때 신라군의 투입부대 사례들이 다([A-3], [A-4]).

[A-1] 겨울 10월, 백제 군사가 우리의 속함·앵잠·기잠·봉잠·기현·혈책 등 여섯 성을 포위하였다. 이때 3성이 함락되거나 항복하였다. 급찬·눌최가 봉잠·앵잠·기현 3성의 군사를 합하여 굳게 지키다가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삼국사기』 권 제4 신라본기 제4 진평왕 46년 10월).

[A-2] 진평왕 건복 41년 기묘 겨울 10월에 백제가 대거 침입하면서 군사를 나누어 속함·앵잠·기잠·봉잠·기현·용책 등 여섯 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왕은 상주·하주·귀당·법당·서당 등 5군에 명하여 이들을 구원하게 하였다(『삼국사기』 권 제47 열전 제7 눌최).

[A-3] 백제의 잔적이 사비성을 공격하였다. 왕은 이찬 품일을 대당 장군으로 임명하고, 잡찬 문왕과 대아찬 양도와 아찬 충상 등으로 하여금 그를 돕게 하였다. 또한 잡찬 문충을 상주 장군으로 임명하고, 아찬 진왕으로 하여금 그를 돕게 하였으며, 아찬 의복을 하주 장군, 무홀·육천 등을 남천 대감, 문품을 서당 장군 의광을 낭당 장군으로 임명하여 사비성을 구원하게 하였다(『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8년 2월).

[A-4] 여름 4월 19일에 군사를 철수하면서 대당과 서당을 먼저 보내고, 하주의 군사를 뒤따라오게 하였다. 그들이 빈골양에 이르렀을 때, 백제 군사를 만나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사망자는 비록 적었으나 병기와

군수품을 상당히 많이 잃었다. 상주 낭당은 각산에서 적을 만나 공격하여 승리하고, 마침내 백제의 진중으로 들어가 2천 명을 참살하였다. 왕은 군사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서 장군 김순·진흙·천존·죽지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였다. 그들이 가시혜진에 도착했을 때, 적군이 가소천까지 퇴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 왔다. 왕이 여러 장수들의 패전 책임을 물어 정도에 따라 벌을 주었다(『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8년 4월).

신라 진평왕 46년(624) 10월 당시의 신라군의 투입부대 사례〔A-1〕,〔A-2〕와 무열왕 8년(661) 2월 백제 부흥군이 사비성 공격 때 신라군의 투입부대 사례〔A-3〕,〔A-4〕를 분석하면 네 가지 공통점 및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신라는 백제지역에 전투부대를 투입하였을 경우 신라·고구려 국경지역에 배치해 놓고 있던 ‘한산정, 우수정, 하서정, 골내근정, 벌력천정 등을 현지에 잔류시켜 놓고 신라·백제 국경지역과 왕경지역 등에 배치시켜 놓은 전투부대들을 투입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신라가 백제지역에 전투부대를 투입하였을 경우 ‘상주정·귀당·하주정·서당 등을 주로 백제지역에 투입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신라는 한산주지역에 십정급 부대 가운데 남천정 골내근정 등 2개 부대를 배치하고 있었는데 ‘2개 부대 가운데 남천정만을 백제지역에 투입하였다.’는 것이다. 넷째는 신라가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 지역을 평정할 당시 대당·상주정·하주정·남천정·서당·낭당·귀당 등 7개 부대를 투입하였다는 것이다.<sup>12)</sup>

신라가 백제와의 전쟁을 할 때마다 투입하였던 상기 부대들은 공통적으로 백제 국경선에 위치해 있던 부대(예 : 상주정·귀당·하주정)들이었거나 또는 나·려국경(羅麗國境)에 가까운 곳이면서도 나·제국경(羅濟國境)에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던 소위 등거리 내선(內線) 상에 위치해 있던 부대(예 : 남천정)들이었다. 그리고 일부는 왕경지역에 위치해 있던 부대(예 : 대당·서당·낭당)들이었다. 군사 배비와 전략적 의미에서 본다면 이들 부

12) 윤일영, 앞 논문, 2007, 422쪽.

대들은 신라가 백제와의 전쟁 때 투입할 수 있는 전략 기동부대인 동시에 전략 예비부대들이다.

사례 [A-1], [A-2]에서 보면 신라는 진평왕 46년(624) 10월 당시 백제가 봉잠성·앵잠성·기현성 등을 포위하자 신라는 상주정·귀당·하주정·서당 등 4개 전투부대를 투입하였다. 그런데 [A-3]과 [A-4] 사례에서 보면 무열왕 8년(661) 2월 당시 백제 부흥군이 사비성을 공격하자 신라는 상주정·귀당·하주정·서당에 추가하여 대당·낭당·남천정 등 7개 부대를 투입하였다. 3개 부대를 추가로 투입한 것은 신라가 백제의 속함성 등을 공격하는 것보다 백제의 사비성을 공략하는데, 더 많은 전투부대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상기 무열왕 8년(661) 2월의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라는 660년 7월 12일 백제의 사비성을 나·당 연합으로 공략하기 위하여 행군도중에 7월 9일 황산벌에서 백제의 계백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이 당시 신라군 규모는 무열왕 8년 2월 당시 백제 부흥군이 사비성을 공격하자 신라가 투입하였던 부대들의 규모와 같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660년 7월 9일 신라군의 군사목표(사비성 공략)와 661년 2월의 그 것과 같다는 점이다. 동일한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백제지역에 출동시켰다면 투입했던 부대규모도 거의 같았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661년 2월 신라의 사비성을 공략에는 660년 7월 황산벌 전투와 사비성 공략에 참전했던 유경험 부대를 투입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660년 7월 9일 신라가 황산벌 전장에 투입한 부대는 대당·상주정·귀당·하주정·서당·낭당남천정 등 7개 부대일 것이다.

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투입부대가 있는데, 사설당이다. 신라는 황산벌 전투를 벌이고 7월 12일에 나·당 연합으로 사비성을 공략하였는데, 공성(攻城) 전문부대를 반드시 대동하였을 것이다. 신라는 660년 7월 당시 공성 전문부대였던 사설당(四設幢: 弩幢·雲梯幢·衝幢·石投幢)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설당은 사비성 공성을 위한 필수부대인 만큼 신라는 사설당

을 사비성으로 가기 전에 치렀던 황산벌전투에도 대동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가 660년 7월 9일 황산벌 전장에 투입한 부대는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당·상주정·귀당·하주정·서당·낭당·남천정·사설당 등 8개 부대일 것이다.

【도표 1】 신라가 대백전 때 백제지역에 투입한 전투부대(사례별 분석)<sup>13)</sup>

660년 보유부대	지휘관 관등	복색	부대 주둔지	황산벌 전투(660. 7. 9) 시 투입 신라 부대	신라가 백제부흥군 사비성 공격시 661년 2월~4월 19일까지 투입한 부대
六停	1.大幢	장군 4인	紫白 王京(현 경북 경주)	1參戰	1參戰
	2.上州停	장군 4인	靑赤 上州(현 경북 상주)	2參戰	2參戰
	3.漢山停(新州停)	장군 3인	黃靑 漢山州(현 경기 광주)		
	4.比列忽停(牛首停 首若州停)	장군 2인	綠白 比列忽州(현 함남 안邊 / 現 강원 춘川)		
	5.河西停(悉直停)	장군 2인	綠白 河西州(현 강원 강릉)		
	6.下州停(比自伐停)	장군 3인	白紫 下州(현 경남 창녕)	3參戰	3參戰
7.貴幢	장군 4인		上州(현 경북 상주)	4參戰 (추가투입)	4參戰(추가투입)
九誓幢	8.誓幢-綠衿誓幢	장군 2인	綠紫 서울(王都 : 경북 경주)	5參戰	5參戰
	9.卽幢-紫衿誓幢	장군 2인	紫綠 서울(王都 : 경북 경주)	6參戰	6參戰
十停	10.音里火停	隊大監 1인	靑 上州(현 경북 상주 청리면)		
	11.三良火停	제대감 1인	黑 良州 推火郡 密津縣(현 경남 밀양 삼량진읍)		
	12.召參停	제대감 1인	黑 居烈郡(현 경남 함안군 군북면)		
	13.南川停	제대감 1인	黃 漢山州(현 경기 이천시 邑內面)	7參戰	7參戰
	14.骨乃斤停	제대감 1인	黃 漢山州(현 경기 여주시 南平面)		
	15.伐力川停	제대감 1인		牛首州 伐力川縣(현 강원 홍천군 홍천읍)	
16.伊火兮停	제대감 1인	綠色 河西州 也尸忽郡 伊火兮縣(현 경북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四設幢	17.髣幢	無衿		8參戰	
	18.雲梯幢	無衿			
	19.衝幢	無衿			
	20.石投幢	無衿			
합계				8개 부대	7개 부대

### 3. 황산벌 전투에 투입된 전투부대 명칭

삼국사기가 전하고 있는 신라의 장군인사기록을 분석도구로 사용하여 신

13) 윤일영, 앞의 논문, 207, 416~421쪽.

라가 황산벌 전장에 투입하였던 전투부대의 명칭을 규명하려 한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이들 전투부대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고 다만 [A-5], [A-6]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라본기 무열왕 7년(660) 7월 9일 조(條)와 김유신 열전에서는 장군들의 이름만을 전하고 있다.

[A-5] 가을 7월 9일에 유신 등이 황산(黃山) 벌판으로 진군하니……장군 흠순이 아들 반굴(盤屈)에게 말하였다.……좌장군 품일이 아들 관장(官狀)을 불러 말 앞에 세우고 여러 장수들을 가리키며 말하였다.……백제의 무리가 크게 패하였다. 계백은 죽고, 좌평 충상(忠常)과 상영(常永) 등 20여 명은 사로잡혔다. (7월 10일) 유신 등이 당나라 군대의 진영에 이르자, 정방은 유신 등이 약속 기일보다 늦었다고 하여 신라의 독군(督軍) 김문영(金文穎)을 군문(軍門)에서 목을 베려 하였다(『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7년 7월 9일, 10일).

[A-6] 장군 정방이 유신, 인문(仁問), 양도(良圖) 세 사람에게 말하였다(『삼국사기』 권 제42 열전 제2 김유신 <중>).

【도표 2】 황산벌 전투 시(660.7.9) 신라군 지휘관 성명, 직책, 부대구성에 관한 정보<sup>14)</sup>

구 분	내 용	비 고
직책 및 성명	대장군 김유신·좌장군 김품일, 장군 김흠춘 <sup>15)</sup> 김문영 <sup>16)</sup> , 김양도 <sup>17)</sup>	직책 : 대장군·좌장군·장군 성명 : 김유신·김품식·김흠춘
부대구성 관련 명칭	대장군, 좌장군, 삼군(三軍)	직책 : 대장군·좌장군 군구성 : 3군(左·中·右軍)

14) 도표 내용은 필자가 신라본기 무열왕 7년(660) 7월 9일 조와 열전 김유신(중)의 내용을 바탕으로 황산벌 전투에 참가하였던 장군들의 성명을 정리한 것이다.

15)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7년 7월 9일 : 장군 흠순이 그의 아들 반굴에게 말하기를 …… 좌장군 품일이 아들 관장[관창이라고도 한다.]을 불러 말 앞에 세우고 여러 장수들에게 보이며 말했다.

16)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7년 7월 9일 : 이 날 정방이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 군사와 마주쳤다. 그는 백제병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유신 등이 당나라 진영에 도착하니, 정방은 유신 등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군문에서 신라 독군 김 문영[穎을 ‘永’으로도 쓴다.]의 목을 베고자 하였다

17) 『삼국사기』 권 제42 열전 제2 김유신(중) : 이 싸움에서 유신의 공로가 컸다. 당나라 황제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그를 표창하였다. 장군 정방이 유신·인문·양도 등 세 사람

【도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라군은 황산벌 전투에 대장군 김유신, 좌장군 김품일, 장군 김흠춘, 김문영, 김양도 등을 투입하였고 이들이 지휘하였던 부대들을 좌군(左軍)·중군(中軍)·우군(右軍)으로 재편성하여 전투를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신라 장군들의 직책 및 성명, 삼군구성(三軍構成)과 관련된 사실, 그리고 추가로 유추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신라가 황산벌 전투에 투입하였던 전투부대의 명칭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삼국사기가 전하는 신라군 지휘관들의 인사와 관련된 기록, 전투부대의 편제, 부대구성과 관련된 기록들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장군들의 인사기록 가운데 극히 일부는 계급 및 장군성명, 부대명칭, 부대의 장군 직위수(職位數)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성명·부대·장군 직위수 등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일부 전투부대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장군들의 인사와 관련된 기록을 분석하면 한 부대에 근무하였던 근무기간과 전방과 수도권을 번갈아 근무하였던 장군인사의 관행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여 결락(缺落)된 신라군의 인사기록을 복원할 수 있다.

비록 장군인사와 관련된 기록들이 계급·성명·부대·장군 직위수 등 3가지 정보를 완전히 포함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포함한 불완전한 것일지라도 오늘날 우리는 당시 장군들의 인사기록, 인사 관행, 장군 편제(직위수) 기록, 부대구성 등과 관련된 기록을 상호 유기적으로 융합시킬 경우 신라가 황산벌에 투입하였던 장군들과 전투부대들의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는 신라군의 군주(軍主：職責)와 관련된 인사기록을 【도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벌휴이사금(伐休尼師今) 2년(185)부터 남기고 있는데<sup>18)</sup> 주로 “누구를 언제부터 어느 부대의 군주로 삼았다.”라는 형식을 빌려서 군주의 성명과 직책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삼국사기가 완전한 인사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군주의 관등, 성명, 직책, 부대를 포함하여 기

에게 말했다. “내가 황제의 명을 받아 일을 처리하게 되었다. 이제 빼앗은 백제 땅을 공들의 식읍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여러분의 공에 보답코자 하는데 어떨까?”

18) 『삼국사기』 권 제2 신라본기 제2 벌휴이사금 2년(185) 2월: “파진찬 구도와 일길찬 구수혜가 좌우 군주가 되어 소문국을 정벌하였다. 군주라는 명칭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술해야 했겠지만 그러하지 못하다. 군주라고 하는 직책이 벌휴이사금 2년(185)부터 무열왕 3년(656)까지 인사기록에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군주의 관등이 장군이었는지 아니면 보다 낮은 계급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주가 장군급 관등을 지녔던 직책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인사기록을 장군인사기록으로 간주하여 해당 장군이 지휘하였던 전투부대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표 3】 군주(軍主)에 대한 인사기록<sup>19)</sup>

시기	관등 (A)	성명 (B)	부대(C) 및 직책(C)	장군 직위수 (E)	시기	관등	성명	직책	장군 직위수
벌휴이사금 2년(185)		仇道/仇須兮	좌우 군주		진평왕 40년 (618)	㉑	邊品	北漢山州軍主 (한산정)	1개
조분이사금 2년(231)	大將軍	于老			진평왕 51년 (623)	大將軍 副將	龍春, 舒玄, 庚信	㉒	3개
자비마립간 16년(473)	左右將軍	伐智/德智			선덕왕 5년 (636)	將軍	關川, 莚吞	㉓	
소지마립간 8년(486)	將軍	實竹			선덕왕 6년 (637)	大將軍	關川	㉔	
지증마립간 6년(505)	①	異斯夫	何瑟羅州軍主 (실직정)	1개	선덕왕 11년 (642)	㉕	品釋	大耶城 都督 (하주정)	1개
법흥왕 12년 (525)	②	伊登	沙伐州軍主 (상주정/귀당)	1개	선덕왕 11년 (642)	大將軍	金庚信	押梁州 軍主 (하주정)	1개
진흥왕 9년 (548)	將軍	朱玲	③		선덕왕 13년 (644)	大將軍	金庚信	㉖	
진흥왕 14년 (553)	④	武力	新州 軍主 (한산정)	1개	진덕왕 원년 (647)	㉗	守勝	牛頭城 軍主 (우수정)	1개
진흥왕 15년 (554)	⑤	于德/脫知	軍主		진덕왕 2년 (648)	㉘	金庚信	押梁州 都督 (하주정)	1개
진흥왕 17년 (556)	⑥	成宗	比列忽州軍主 (우수정)	1개	진덕왕 3년 (649)	大將軍 將軍	庚信, 陳春, 竹旨, 天存	㉙	4개
진흥왕 18년 (557)	⑦	起宗	甘文州 軍主 (상주정)	1개	무열왕 3년 (656)	㉚	金仁問	軍主	
진평왕 36년 (614)	⑧	日夫	一善州軍主 (상주정)	1개	무열왕 6년 (659)	左武衛將軍	文王	㉛	
					무열왕 7년 (660)	大將軍 左將軍	庚信, 品日, 欽春	㉜	

【도표 3】은 벌휴이사금 2년(185)부터 무열왕 3년(656)까지 삼국사기가 전하고 있는 6정급(六停級) 부대 및 서당급(誓幢級) 부대의 인사기록을 도

19) 『삼국사기』 신라본기가 전하고 있는 신라 벌휴이사금 2년(185)부터 무열왕 3년(656)까지 군주와 관련된 『삼국사기』 기록을 발췌하였다.

표화한 것이다. 참고로 당시 신라는 6정급부대 및 서당급부대들에만 장군들의 직위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장군 인사기록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도표 3】에서 관등(A), 성명(B), 부대(C), 직책(D), 장군 직위수(E)의 공란을 채워야 한다.

관등과 성명만을 남긴 인사기록일 경우 부대와 직책, 장군직위 수를 알 수 없고 성명과 직책만을 남긴 인사기록일 경우 관등과 부대, 장군직위 수를 알 수 없다.

【도표 3】은 관등(A), 성명(B), 부대(C), 직책(D), 장군 직위수(E)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관등(A)를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즉 【도표 3】에서 우선 ① (실직정 군주의 관등), ② (상주정 군주의 관등), ④ (한산정 군주의 관등), ⑥ (비열홀정 군주의 관등), ⑦ (상주정 군주의 관등), ⑧ (상주정 군주의 관등), ⑨ (한산정 군주의 관등), ⑩ (하주정 군주의 관등), ⑭ (우수정 군주의 관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 선덕왕 11년(642) 기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대장군 김유신에게 명하여 결사대 1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게 하였다. 유신이 행군하여 한강(漢江)을 넘어 고구려 남쪽 경계에 들어가니, 고구려 왕이 이를 듣고 춘추를 놓아 돌려보냈다. 유신을 압량주(押梁州) 군주로 삼았다.”<sup>20)</sup>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군주에 대한 관등(大將軍), 성명(金庾信), 직책(軍主), 부대(押梁州)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오늘날 우리는 당시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로서 장군급의 관등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도표 3】에서 신라의 ‘군주급 지휘관의 관등이 장군급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도표 4】는 삼국사기가 전하는 629년부터 660년까지 장군인사기록을 종합한 것이다. 이를 분석하면 신라가 이 기간 동안에 실시하였던 장군 인사경향을 가늠할 수 있다. 신라는 가급적 동일부대에 특정한 인물을 중복배치하지 않았으며 장군의 보직기간을 2년~3년으로 제한하였다.

20)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선덕왕 11년.

【도표 4】 『삼국사기』의 629~660년 신라 장군 인사기록  
(부대명, 창설시기, 장군직위 수, 장군성명)

구분	大唐	上州停	漢山停	牛首停	河西停	下州停	舊幢	郎幢	貴幢	兵部令
별칭		사별주 일선주	新州停 南川停	比列忽停	悉直停	比子伐停 押梁州	綠衿舊幢	紫衿舊幢		
부대창설 시기	진흥왕 5년(544)	진흥왕 13년(552)	진흥왕 14년(553)	진흥왕 17년(556)	지증왕 6년(505)	진흥왕 16년(555)	진명왕 5년(583)	진평왕 47년(625)	진흥왕 23년(562)	
장군 직위수	4인	4인	3인	2인	2인	3인	2인	2인	4인	
629			龍春·舒玄 ·庾信							
636							關川·弼吞			
637	關川									
638	關川									
639					眞珠					
642						庾信				
644										
645		庾信								
647						庾信				
647				守勝						
648						庾信				
648		庾信 <sup>21)</sup>								
649		庾信·竹 旨·陳春· 天存 <sup>22)</sup>								
655	大角滄 유신 <sup>23)</sup>									
656						金仁問				
659										眞珠
660	庾信									
661	眞珠									

21) 『삼국사기』 권 제41 열전 제1 김유신/54세(648) 유신이 백제의 영토에 들어가 嶽城 등 12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2만여 명을 목베고, 9천 명을 사로잡았다. 공로를 논하여 이 찬으로 승진시키고 上州 행군대총관에 임명하였다.

22)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진덕왕 3년 8월조에서 “가을 8월 백제의 장군 은상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石吐城 등 7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왕이 대장군 유신과 장군 진춘·죽지·천존 등에게 명하여 나아가 막게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는 전하지 않고 있다. 김유신이 648년 대량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상주총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점과 신라가 상주정에 4명의 장군을 보직시키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신·죽지·진춘·천존 등 4장군은 상주정 소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23) 『삼국사기』 무열왕 2년(655) 10월에 왕의 딸인 智照를 대각찬 유신에게 시집보냈다.

예를 들면 김유신의 경우 압량주(押梁州 : 현 경북 경산시 압량면)<sup>24)</sup> 군주를 3년간(642~645) 수행하고 645년에 상주정의 장군 직위였던 상주장군(上州將軍)으로 재보직을 받아 2년간 역임하였다. 그리고 진주(眞珠)도 659년부터 661년까지 병부령(兵部令)으로 2년간 근무하다가 661년에 대당장군(大幢將軍)으로 발령을 받았다.

또한 신라는 왕경(王京 : 현 경북 경주)에 주둔하고 있던 대당의 장군인 품일과 충상을 661년 7월에 상주정(上州停 : 현 경북 상주)으로 전출시켰는데, 이는 왕경에서 전방부대로 전출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는 가급적 전후방을 번갈아 가면서 장군들을 보직시켰다.

### (1) 김흠순이 지휘한 전투부대 명칭

660년 7월 9일 황산벌 전투장에서 신라 김흠순(金欽純) 장군이 지휘하였던 부대의 명칭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A-4] 기사는 무열왕(武烈王)이 8년(661) 4월 19일 “군대(大幢·誓幢·下州군대)가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장군 김순(金純 : 金欽純 誤記)·진흠·천존·죽지를 보내 군사를 증원하여 구원케 하였다.”고 했다.

【도표 5】 661년 4월 19일 신라가 6정급부대 및 서당급부대 가운데 백제지역에 투입했던 부대와 신라·고구려 국경지대 및 왕경(王京) 일대에 잔류시킨 부대명칭

6정 및 서당급 부대명칭		장군직위 편제 수	부대 고유주둔지	백제지역 투입부대	신라 잔류부대
六停級 부대	大幢	4명	현 경북 慶州	패배	
	漢山停	3명	현 경기 廣州		잔류
	牛首停	2명	현 강원 春川		잔류
	河西停	2명	현 강원 江陵		잔류
	上州停	4명	현 경북 尙州	승리	
	下州停	3명	현 경남 昌寧	패배	
誓幢級 부대	貴幢	4명	현 경북 尙州		잔류
	誓幢	2명	현 경북 慶州	패배	
	郎幢	2명	현 경북 慶州	승리	

24) 신라는 押梁州를 押梁 또는 押督이라고도 칭하였다. 압량주의 州治所는 현재 경북 경산시 압량면이다. 신라는 선덕여왕 11년(642) 8월에 大耶州를 백제에게 빼앗긴 후 그 주치소를 압량으로 옮겼다. 무열왕 8년(661)에 김유신이 대야성(현 경남 함천군 함천읍 함천리 산2)을 회복하고 州治를 다시 大耶로 옮겼다. 이를 종합하면 신라는 하주의 주치소를 하주(下州)-대야주-압량주-대야주로 이동시켰다.

여기서 무열왕이 증원군으로 보낸 부대, 즉 장군 김흠순·진흠·천존·죽지 등이 지휘하였던 부대의 고유 명칭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도표 5】는 661년 4월 19일 당시 신라가 백제지역에 투입하였던 부대들의 명칭과 신라영토 내에 잔류시켰던 부대들의 명칭을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당시 신라는 6정급 부대 7개 부대와 서당급 부대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신라가 백제지역에 투입한 부대는 대당·상주정·하주정 등 6정급 부대 3개 부대와 서당·낭당 등 서당급 부대 2개 부대였다. 그리고 9개 부대 가운데 영토 내에 잔류시키고 있던 부대는 한산정(현 경기 광주)·우수정(현 강원 춘천)·하서정(현 강원 강릉)<sup>25)</sup>·귀당(현 경북 상주) 등 4개 부대였다.

신라는 당시 한산정·우수정·하서정 등 3개 부대를 신라·고구려 국경 지대에 배치시켜 놓고 고구려의 남진을 억제하고 있었다. 만약 신라가 이 국경지역에 배치시켜 놓고 있던 3개 부대 중에서 1개 부대를 차출하여 백제지역으로 전환시킬 경우 신라는 차출된 부대가 담당하고 있던 지역을 부득이 무방비 상태로 비워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경지역의 취약성을 증대시키면서까지 전방부대를 빼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런 전략적 이유로 당시 신라는 고구려와의 북쪽 국경지역에 배치시켜 놓은 한산정·우수정·하서정을 백제지역으로 전환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가 백제지역에 증원시키기 위해 잔류부대 가운데 전환시킬 수 있는 가용한 부대는 상주(上州: 현 경북 상주)에 주둔시키고 있던 귀당<sup>26)</sup>뿐이었다.

25) 하서정 : 신라가 하서주의 州治所에 배치시켜 놓은 군부대다. 658년 실직정을 혁파하고 하서정을 설치하였다. 신라가 하서정을 배치하였던 하서주의 주치소는 현 강원도 강릉시다.

26) 『삼국사기』 권 제6 신라본기 제6 문무왕 1년(661) 7월 17일, “가을 7월 17일에 金庾信을 大將軍으로 삼고, 仁問·眞珠·欽突을 大幢將軍으로, 天存·竹旨·天品을 貴幢總管으로, 品日·忠常·義服을 上州총관으로, 眞欽·衆臣·自簡을 下州총관으로, 軍官·戴世·高純을 南川州총관으로, 述實·達官·文穎을 首若州총관으로, 文訓·眞純을 河西州총관으로, 眞福을 誓幢총관으로, 義光을 郎幢총관으로, 慰知를 계급대감(關衿大監)으로 삼았다.” 661년 위 기록을 보면 上州停과 貴幢은 별개의 부대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는 문무왕 13년(673)에 상주정을 貴幢으로 통합시켜 하나의 부대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A-4] 기사에 의하면 무열왕은 김순(김흠순 誤記)·진흠·천존·죽지 등 4명의 장군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 기사는 왕이 파견한 증원부대에 소속된 장군수를 말해준다. 신라가 무열왕 8년(661) 4월 19일 당시 영토 내에 잔류시켜 놓고 있던 한산정, 우수정, 하서정, 귀당 등 4개 부대 가운데 '4명의 장군직위를 운용하고 있던 부대'는 귀당(【도표 5】 참조)뿐이었다.

신라가 당시, 전략적 측면에서 백제지역으로 전환시켜 증원할 수 있는 부대는 귀당밖에 없었고 또한 영토 내 잔류시켜 놓은 4개 부대 가운데 장군 직위 4개를 운용하고 있던 부대도 역시 귀당뿐이었다. 그렇다면 신라가 무열왕 8년(661) 4월 19일 백제 지역으로 출동시킨 증원부대는 귀당이 확실하다.

한편 신라는 장군들을 6정급 부대 및 서당급 부대에 보직시키면 통상 2년 내지 3년 동안 근무토록 하고 있었다. 무열왕 8년(661) 4월(귀당 출동시기) 당시에 김순·진흠·천존·죽지 등이 귀당에 소속되어 있던 장군들이었다면 근속기간(2년~3년)을 고려할 경우 9개월 전이었던 무열왕 7년(660) 음력 7월 9일에도 이들 4인은 귀당에 소속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근속기간을 적용해 본 결과 김흠순 장군은 무열왕 7년(660) 7월 9일 당시 귀당에 소속되어 있던 장군이었다. 삼국사기는 무열왕 7년 7월 9일 조에서 김흠순 장군이 황산벌 전투에 참전하여 그의 아들 반굴(盤屈)을 적진에 뛰어들게 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sup>27)</sup> 따라서 김흠순 장군이 660년 7월 9일 소속되었던 부대가 귀당이었고, 7월 9일 황산벌 전투장에서 김흠순 장군이 지휘한 전투부대는 귀당이었다.

## (2) 김유신과 김품일이 지휘한 전투부대 명칭

[A-3]에 의하면 신라 무열왕은 8년(661) 2월에 김품일(金品日) 장군을

27)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7년(660), “장군 흠순이 아들 盤屈에게 말하였다. 신하된 자로서는 충성만한 것이 없고 자식으로서는 효도만한 것이 없다. [이런] 위급함을 보고 목숨을 바치면 忠과 孝 두 가지 모두를 갖추게 된다. 반굴이 삼가 분부를 알아들겠습니다.” 하고는 곧 적진에 뛰어들어 힘써 싸우다가 죽었다.

대당(大幢)의 지휘관으로 발탁하였다고 한다. 인사발령 시점에서 보면 이 기사는 김품일 장군이 대당 장군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대당이 아닌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김품일 장군이 대당장군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근무하던 부대는 무슨 부대였을까?

참고로 고대군(古代軍)의 경우 야전에서 융통성 있는 전술운용을 위하여 통상 전군(全軍)을 좌군, 중군, 우군 등 3군으로 나누어 공격 당시 상황에 따라 각군에게 주공(主攻)과 조공(助攻), 예비대(豫備隊)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최고사령관은 통상 중군에 위치하여 전군을 지휘하였고, 공격 때 중군에게는 통상 주공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최고 사령관은 통상 좌군의 지휘자를 우군의 지휘자보다 상위 서열자에게 맡겼고 우군을 그 다음 서열자에게 맡겼다. 그리고 좌군과 우군에게 조공 및 예비대 임무를 부여하였다. 좌장군과 우장군은 각각 좌군과 우군을 지휘하는 직책이었다.

신라의 경우 부대 서열상 대당은 4명의 장군직을 운용하고 있던 최상위급 부대였다. 그래서 신라는 대당의 지휘관을 통상 대장군으로 칭하였다. 삼국사기는 무열왕 7년(660) 7월 9일 황산벌 전투 때 김유신의 직위를 대장군<sup>28)</sup>으로 칭하고 있다. 이는 ‘김유신이 대당의 지휘관이며, 동시에 신라군의 최고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상주정과 귀당도 4명의 장군직위를 운용하였던 부대들로서 대당 다음가는 위상을 지닌 부대들이었다. [A-5] 기사에 의하면 신라는 황산벌 전투 때 대장군 김유신을 최고사령관으로 하고 김품일을 좌장군으로 삼았다. 아울러 삼국사기는 황산벌 전투 때 전투부대를 지휘하였던 신라장군을 3명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대장군 김유신, 좌장군 김품일, 장군 김흠순 등 이다. 삼국사기는 전투부대 구성과 관련하여 김품일의 직책을 좌장군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김흠순의 직책을 명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품일 장군과 김흠순 장군 2명 가운데 김품일 장군이 좌장군을 맡고 있었다면 전투부대 구성과 관련된 전후 내용으로 보아 김흠순 장군이 우장군을 맡았을 것이다.

28)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7년(660).

그런데 김품일이 좌장군을 맡고 김흠순이 우장군을 맡았다면 좌장군이 우장군보다 서열이 앞선 직위였으므로 김품일이 맡았던 부대는 김흠순이 지휘하였던 귀당보다 규모가 크거나 귀당과 동급부대였을 것이다.

신라가 660년 7월 9일 당시 장군직위를 운용하고 있던 부대는 【도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8개 부대였다. 즉 대당·상주정·귀당·하주정·하서정·우수정·서당·낭당 등이다. 【도표 5】의 장군직위 편제수는 『삼국사기』 제군관(諸軍官) 조<sup>29)</sup>에 나오는 장군공석을 도표화한 것이다.

이 8개 부대 가운데 4명의 장군직위를 편제하고 있었던 부대는 대당과 상주정 귀당 등 3개 부대뿐이었다. 이들 3개 부대 가운데 대장군 김유신이 대당을 지휘하고 있었고 우장군 김흠순이 귀당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러면 좌장군 김품일이 지휘할 수 있는 부대는 상주정뿐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황산벌 전투 때 신라 '좌장군 김품일이 지휘하였던 전투부대는 다름 아닌 상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문영과 양도가 지휘한 전투부대 명칭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김유신 열전(중)에 의하면 신라군이 황산벌 전투에 투입하였던 인물은 【도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장군 김품일, 장군 김흠춘(金欽春: 김흠순), 독군 김문영, 장군 양도, 제감 천복 등이다. 여기서 문영과 양도가 지휘하였던 부대의 명칭을 확인해 보자.

29) 『삼국사기』 권 제40 잡지 제9 무관 諸軍官 장군: 장군은 모두 36명이다. 대당은 4명이 맡는다. 귀당은 4명이 맡는다. 한산정은 3명이 맡는다. 완산정은 3명이 맡는다. 하서정은 2명이 맡는다. 우수정은 2명이 맡는다. 관등은 진골 上堂으로부터 上臣까지로 삼았다. 녹금당은 2명이 맡는다. 자금당은 2명이 맡는다. 백금당은 2명이 맡는다. 비금당은 2명이 맡는다. 황금당은 2명이 맡는다. 흑금당은 2명이 맡는다. 벽금당은 2명이 맡는다. 적금당은 2명이 맡는다. 청금당은 2명이 맡는다. 관등은 진골 급찬으로부터 각간까지로 삼았다. 경덕왕 때에 이르러 熊川州停에 3명을 더 두었다.

【도표 6】 황산벌전투에 참전한 신라 주요 인물과 장군<sup>30)</sup>

구 분	삼국사기 신라본기 : 參戰者 성명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 參戰者 성명
660. 6. 21~7. 9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7년(660) 7월: 태자, 대장군 庾信, 장군 品日·欽春	
660. 7. 9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7년 7월 9일: 庾信·장군 欽純·盤屈, 좌장군 品日·官狀(또는 官昌)	
660. 7. 10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7년 7월 10일: 庾信·金文穎	
660. 7. 30~9. 2		삼국사기 권 제42 열전 제2 김유신(중) : 庾信·인문·良圖
660. 7. 9. 황산벌 전투에 참전한 인물	1太子 金法敏, 2大將軍 金庾信, 3左將軍 金品日, 4장군 金欽純, 5盤屈, 6官昌, 7督軍 金文穎, 8 弟監 天福,	1大將軍 金庾信, 2良圖 <sup>31)</sup>

먼저 문영이 지휘한 전투부대 명칭이다. 신라 독군 김문영(金文穎)은 황산벌 전투 때 어느 부대에 속해 있었을까? 당시 김문영은 신라군의 독군이였다. 독군은 예하부대 작전수행을 감찰하는 장수였다. 그래서 독군은 항상 최고사령관이었던 대장군 김유신과 같은 대당에 위치하면서 업무를 보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김문영은 대당에 소속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도표 7】을 보면 상주정에는 문충(文忠)이 있고 서당에는 문품(文品)이 있는데 돌림자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문영과 문충·문품은 같은 문중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신라는 김문영을 상주정과 서당에 같은 문중의 장군끼리 근무하도록 배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도표 7】은 무열왕 7년(660) 7월 9일 황산벌 전투 때 6정급부대와 서당급부대를 지휘하였던 장군들의 성명을 복원한 도표이다. 검고 굵은 한글 글씨는 삼국사기 기록을 인용한 것이다. 검으며 고딕체 한문글씨는 필자가 신라의 인사관행과 전후사정을 분석하여 황산벌 전투 때 전투부대를 지휘하였던 장군들의 성명을 복원(復元)한 것이다.

30) 【도표 6】은 무열왕 7년 기사와 김유신 열전(중) 내용을 바탕으로 서기 660년 7월 9일 황산벌 전투에 참전하였던 인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31) 『삼국사기』 권 제42 열전 제2 김유신(중):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유신·인문·양도 세 사람에게 말하였다. 양도는 앞의 기사와 전후 상황을 고려할 경우 황산벌 전투에 참전한 다음 백제 사비성으로 갔을 것이다.

다음은 양도가 지휘한 전투부대 명칭이다. [A-3]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는 무열왕 8년(661) 2월 양도(良圖)를 대당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신라는 장군들을 한 부대에서 대략 2년 내지 3년을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사경향을 고려할 경우 양도는 무열왕 8년 2월을 기준하여 1년 전인 무열왕 7년 7월 9일 황산벌 전투 당시 대당에 근무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무열왕 8년 2월에 다시 대당장군으로 재임명되었을 것이다.

#### 4. 황산벌전투시 전투부대의 지휘관 및 투입 병력수

##### (1) 지휘관 성명

앞에서 신라가 황산벌 전장에 투입하였던 전투부대를 식별하였다. 그 결과 신라는 당시 대당·상주정·귀당·하주정·서당·낭당·남천정 등 7개 부대와 더불어 사설당(노당·운제당·충당·석투당)을 황산벌 전투장에 투입하였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도표 7】 황산벌전투 때 신라 6정급 부대와 서당급 부대의 지휘관 성명

구분	大幢	上州停	漢山停	牛首停	河西停	下州停	誓幢	郎幢	貴幢
별칭			新州停	比列忽停 首若停	悉直停	比子伐停 押督州 大耶州	綠衿誓幢	紫衿誓幢	문무왕 13년 (673) 상주정과통합
창설시기	진흥왕 5년(544)	진흥왕 13년(552)	진흥왕 14년(553)	진흥왕 17년(556)	지증왕 6년(505)	진흥왕 16년(555)	진평왕 5년(583)	진평왕 47년(625)	진흥왕 23년 (562) 활동
장군 직위수	4인	4인	3인	2인	2인	3인	2인	2인	4인
660.7.9	유신·文王· 良圖·文額	품일·文忠· 眞王·欽突	軍官·嚴世· 高純	述實·述官	文訓·眞純	義服·衆臣	文品·眞福	義光·宗貞	흠춘·眞欽· 天存·竹旨
661.2	품일·문왕 양도·충상	문충·진왕				의복	문품	의광	흠춘·진흠· 天存·竹旨
661.4.19		의복				종경			흠춘·진흠· 천존·죽지
661.7.17	유신·인문· 진주·흠들	품일· 충상·의복	군관· 수제·고순	술실· 달관·문영	문훈·진순	진흠·중신· 자간 <sup>32)</sup>	진복	의광	흠춘·천존· 죽지·천품

32)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무열왕은 7년(660) 11월 22일: 백제 佐平 忠常과 常英, 達率 自簡에게 一古浪의 관등을 주어 總管의 직을 맡겼다.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황산벌 전투 때 신라 6정급 부대와 서당급 부대의 지휘관 성명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대당을 지휘한 장군 성명이다. 신라 무열왕 7년(660) 7월 9일 황산벌 전투장에서 대당을 지휘하였던 인물은 대장군 김유신이었다. 신라는 대당에 4명의 장군을 두었으므로 대장군 김유신 이외에 3명의 장군이 더 있었을 것이다. [A-3] 기사는 무열왕 8년(661) “2월에 백제의 남은 적병들이 사비성을 공격해 왔으므로 왕이 이찬 품일을 대당장군으로 삼고, 잡찬 문왕, 대아찬 양도, 아찬 충상(忠常) 등으로 [그들] 보좌케 하였다”고 했다.

신라는 통상 장군들을 한 부대에 2년 내지 3년을 근무토록 하였다. 따라서 양도는 무열왕 8년 2월 대당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1년 전인 7월 9일에도 대당에 근무하고 있었을 것이다.

품일은 황산벌 전장에서 좌장군으로서 상주정을 지휘하였다. 그러나 【도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661년 2월 상주정에서 대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5개월 만에 다시 부대를 옮겼던 특이한 사례다.

충상은 본래 백제의 좌평으로서 황산벌 전투에 참전하여 신라군에게 패배한 후에 상영 등과 함께 포로가 되었다가 전향하여 신라의 일길찬 관등을 받았다. 또한 충상은 648년(의자왕 7)에 백제 장군 8명과 대야성(大耶城) 도독 김품석 부부의 유해를 교환하자는 신라 김유신의 제의를 수용하도록 의자왕을 설득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충상은 661년 2월에는 대당장군이 되어서 대당장군 김품일을 도와 사비성의 구원에 참가하였다.

아울러 독군 김문영은 대장군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독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황산벌 전투 시 대당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황산벌 전투 당시(660.7.9) 대당에 소속되어 있던 장군들은 김유신·문왕·양도·문영 등 4인이었다.

둘째, 상주정을 지휘한 장군 성명이다. 상기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황산벌 전장에서 상주정을 지휘하였던 장군은 김품일이었다. 당시 상주정은 4명의 장군을 운용하고 있었다. [A-3]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는 무열왕 8년(661) 2월 문충과 진왕을 상주장군으로 삼았다. 신라는 대부분 장군을 한 부대에 2년 내지 3년 정도 근무토록 하였다. 문충과 진왕은 무열왕 8년

(661년) 2월 상주장군이였으므로 1년 전인 660년 7월 9일의 황산벌 전투에도 상주장군으로 참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A-5] 기사를 보면 신라는 무열왕 8년(661) 7월 17일 김흠돌을 대당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전후사정을 고려할 경우 김흠돌은 황산벌 전투 때 상주정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듬해(661) 7월 17일에 새로 대당장군으로 재임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황산벌 전투에서 상주정을 지휘하였던 장군들은 김품일·문충·진왕·흠돌 등 4인이었다.

셋째, 한산정에 소속된 장군 성명이다. [A-5] 기사에 의하면 신라 무열왕은 8년(661) 7월 17일 군관·수세·고순을 남천주 총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잡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신라는 660년 7월 당시 6정급 부대 7개와 서당급 부대 2개, 10정급 부대 7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군 직위를 6정급 부대와 서당급 부대에만 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무열왕 8년(661년) 7월 17일 조에서 신라가 10정급 부대였던 남천정에 장군급 총관 3명을 임명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찬술자(撰述者)가 오기(誤記)한 것이다. 한산정에 임명한 장군들을 남천정의 총관으로 오기한 것이다. 전후문맥으로 보면 신라는 군관·수세·고순을 남천주 총관이 아닌 한산주 총관으로 임명하였을 것이다. 신라는 당시 한산정에 장군직위 3개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를 고쳐서 보면, 군관·수세·고순 등 3인은 무열왕 7년(660) 7월 당시에도 한산정에 근무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듬해(661) 7월 17일 다시 한산정 장군으로 재임명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무열왕 7년(660) 7월 한산정 장군들은 군관·수세·고순 등 3인이었다. 참고로 한산정은 황산벌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

넷째, 하주정을 지휘한 장군 성명이다. [A-3] 기사에 의하면 신라는 무열왕 8년(661) 2월 의복(義服)을 하주정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신라는 대부분 장군을 한 부대에 2년 내지 3년 정도 근무도록 하였기 때문에 1년 전이었던 660년 7월 9일에도 의복의 근무처는 하주정이었을 것이다. 당시 상주정은 3명의 장군직위를 운용하고 있었다. [A-4] 기사와 [A-5] 기사를 보면 신라는 661년 2월에 종정을 하주정 장군으로 보내고 하주정에 근무하던

의복(義服)을 상주정으로 보냈다.

그런데 [A-5] 기사에 의하면 신라는 661년 7월 17일 진흙·중신·자간을 하주정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라는 진흙을 귀당장군에서 하주정장군으로 보냈는데 이를 [A-4] 기사와 [A-5]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흙·중신·자간 등 3인 가운데 중신은 장군의 한 부대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660년 7월 9일에도 하주정에서 근무하였을 것이다. 하주정에서 계속 근무해 오다가 이듬해(661) 7월 17일 다시 하주정 장군으로 재임명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간(自簡)은 백제사람으로서 달솔(達率)이었다. 자간은 무열왕으로부터 660년 11월 22일 일길찬(一吉澣)의 관등을 받았고 문무왕으로 부터 661년 6월 다시 하주총관을 임명받았다. 따라서 황산벌 전투 당시(660.7.9) 하주정을 지휘하였던 장군들은 의복·중신 등 2명이었다. 삼국사지 제군관 조에 의하면 하주정은 3개의 장군직위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신라는 660년 7월 9일 당시에는 2개의 장군직위를 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서당을 지휘한 장군 성명이다. 신라는 당시 서당에 2명의 장군직위를 운용하고 있었다. [A-3] 기사를 보면 신라는 무열왕 8년(661) 2월 문품을 서당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신라는 대부분 장군을 한 부대에 2년 내지 3년 정도 근무도록 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문품도 1년 전인 660년 7월 9일 서당장군으로 근무하였을 것이다.

[A-5] 기사를 보면 신라는 661년 7월 17일 문품 대신에 진복(眞福)을 서당장군으로 임명하였다. 【도표 7】에서 보면 진복이 다른 부대에서 근무한 기록이 전혀 없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진복은 무열왕 7년(660) 7월 9일 이래 서당에서 지속 근무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문품과 진복은 모두 함께 660년 7월 9일 서당에 근무했었고 이듬해 7월 17일 다시 서당장군으로 재임명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황산벌에서 서당을 지휘하였던 장군들은 문품과 진복 등 2명이었을 것이다.

여섯째, 낭당을 지휘한 장군 성명이다. 신라는 당시 낭당에 2명의 장군직위를 운용하고 있었다. [A-3] 기사를 보면 신라는 661년 2월 의광(義光)을 낭당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신라 장군이 통상 한 부대에 2년 내지 3년 정도

근무한 사례로 볼 때 의광도 1년 전인 660년 7월 9일에도 낭당에 근무하였을 것이다.

[A-4] 기사를 보면 신라는 무열왕 8년(661년) 4월 19일 종정(宗貞)을 하주정장군(下州停將軍)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도표 7】을 보면 종정은 전후 사정으로 보아 무열왕 8년 4월 19일 이전에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였을 것이다. 종정이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였다면 【도표 7】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경우 종정이 근무할 만한 부대는 낭당밖에 없다. 따라서 무열왕 7년(660) 7월 9일 황산벌 전투장에서 낭당을 지휘하였던 장군들은 의광과 종정 등 2명이었다.

일곱째, 귀당을 지휘한 장군 성명이다. [A-4] 기사에 의하면 신라는 무열왕 8년(661) 4월 19일 흠춘·진흠·천존·죽지 등 4명을 귀당장군으로 임명하였다. 당시 귀당은 장군직위 4개를 운용하고 있었다.

[A-7] 6월, 당 나라에 들어가 숙위하던 인문과 유돈 등이 돌아왔다. 그들은 왕에게 “황제가 이미 소정방으로 하여금 35도의 수륙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하면서, 마침내 왕께도 군사를 파견하여 응원하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상중일지라도 황제의 칙명을 어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가을 7월 17일, 김유신을 대장군, 인문·진주·흠돌을 대당 장군, 천존·죽지·천품을 귀당 총관, 품일·충상을 의복을 상주 총관, 진흠·중신·자간을 해주 총관, 군관·수세·고순을 남천주 총관, 술실·달관·문영을 수약주 총관, 문훈·진순을 하서주 총관, 진복을 서당 총관, 의광을 낭당 총관, 위지를 계급 대감으로 임명하였다. 8월, 대왕이 모든 장수를 거느리고 시이곡에 도착하여 머물렀다(『삼국사기』 권 제6 신라본기 제6 문무왕 원년).

[A-7] 기사에 의하면 신라는 무열왕 8년 7월 17일에는 흠춘·천존·죽지를 다시 귀당장군으로 재임명하였다. 그리고 진흠을 하서정장군으로 보내고 천품을 대신 귀당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전후 사정으로 비추어 보아 황산벌 전투 때 흠춘·진흠·천존·죽지 등 4명은 귀당장군으로 근무하였다

가 무열왕 8년 4월 19일 다시 귀당장군으로 재임명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무열왕 7년(660) 7월 9일 황산벌 전투장에서 귀당을 지휘하였던 장군들은 흠춘·진흠·천존·죽지 등 4명이었다.

## (2) 신라 투입 병력 수

지금까지 신라가 황산벌 전장에 투입하였던 8개 부대들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8개 부대들을 지휘하였던 장군들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8개 부대들의 총병력수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신라가 무열왕 7년(660) 7월 9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대 수, 병력수, 부대편제를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sup>33)</sup> 이를 인용하여 신라가 황산벌 전투 시 투입하였던 8개 부대의 부대명칭, 장군수, 참모수, 당급전투부대수, 부대별 병력 수와 총병력 수를 산출하였다.

【도표 8】 신라가 황산벌에 투입한 부대명칭, 장군·참모수, 당급 전투부대수, 총병력 수

구분	부대명칭	장군수	참모수	당급 전투부대수	병력 수
1	大幢	4명(金庾信·文王·良圖·文穎)	56명	軍節幢 1개, 大匠尺幢 1개, 步騎幢 6개, 黑衣長槍末步幢 30개	4,763명
2	上州停	4명(品日·文忠·眞王·欽突)	46명	군사당 1개, 대장척당 1개, 보기당 4개, 흑의장창말보당 22개	3,753명
3	貴幢	4명(欽春·眞欽·天存·竹旨)	46명	군사당 1개, 대장척당 1개, 보기당 4개, 흑의장창말보당 22개	3,753명
4	下州停	2명(義服·衆臣)	42명	군사당 1개, 대장척당 1개, 보기당 4개, 흑의장창말보당 20개	3,548명
5	誓幢	2명(文品·眞福)	57명	군사당 1개, 대장척당 1개, 보기당 1개, 著衿騎幢 18개, 흑의장창말보당 24개	5,762명
6	郎幢	2명(義光·宗貞)	57명	군사당 1개, 대장척당 1개, 보기당 1개, 著衿騎幢 18개, 흑의장창말보당 20개	5,562명
7	南川停	장군직 없음	5명	三千幢 6개	3,017명
8	四設幢 弩幢 雲梯幢 衝幢 石投幢	장군직 없음		노당 15개	1,500명
				운계당 6개	600명
				총당 12개	1,200명
				석투당 12개	1,200명
합계		18명	309명	幢級부대수 : 257개, 幢級병력 수 : 34313	34,658명

33) 윤일영, 앞 논문, 2007.

【도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라가 황산벌 전장에 투입하였던 부대는 전투부대 7개(대당·상주정·귀당·하주정·서당·낭당·남천정)와 공성작전 전문부대였던 사설당 1개(노당·운제당·충당·석투당)였는데 이들 전투부대들을 지휘하였던 장군들은 18명이고 부대의 참모수는 309명이었다.

즉 대당에 소속되어 있던 장군들은 김유신, 문왕, 양도, 문영 등 4인이었다. 상주정에 소속되어 있던 장군들은 김품일·문충·진왕·김흠돌 등 4인이었다. 귀당에 소속되어 있던 장군들은 김흠춘·진흠·천존·죽지 등 4인이었다. 하주정에 소속되어 있던 장군들은 의복, 중신 등 2인이었다. 서당에 소속되어 있던 장군들은 문품·진복 등 2인이었다. 낭당에 소속되어 있던 장군은 의광·종정 등 2인이었다.

그리고 신라가 황산벌 전장에 투입한 당급부대(幢級部隊:100명 급 부대) 수는 257개(도표 8 참조)였다. 따라서 황산벌 전투장에 투입하였던 총 병력 수는 34,658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투부대 병력 수는 30,158명이었고 공성작전을 위한 전투지원 병력 수는 4,500명이었다.

## 5. 결 론

신라가 무열왕 7년(660) 나·당 연합으로 나·제전쟁을 전개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대 수는 36개였다. 그리고 무열왕 7년(660) 나·제전쟁 때 신라가 백제지역에 투입한 부대 수는 20개 부대였으며, 20개 부대별 병력 수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대당 4,763명
- ② 귀당 3,753명
- ③ 상주정 3,753명
- ④ 하주정 3,548명
- ⑤ 서당 5,762명
- ⑥ 낭당 5,562명
- ⑦ 남천정 3,017명
- ⑧ 음리화정 3,017명
- ⑨ 삼량화정 3,017명
- ⑩ 소삼정 3,017명
- ⑪ 이화혜정 3,017명
- ⑫ 계금당 611명
- ⑬ 군사당 1,003명
- ⑭ 노당 1,500명
- ⑮ 운제당 600명
- ⑯ 충당 1,200명

⑰ 석투당 1,200명 ⑱ 사자금당 3,000명 ⑲ 시위부 180명 ⑳ 수군 9,100명 등 20개 부대며, 총 병력수는 60,620명(수군 9,100명+지상병력 51,520명)이었다.

그런데 시위부(侍衛附: 180명)는 왕을 시위 및 호종(扈從)하는 부대였고, 사자금당(師子衿幢: 3,000명)은 왕궁을 경비하는 부대다. 시위부와 사자금당은 무열왕과 함께 금돌성(今突城)에 머물고 있다가 전투부대들이 사비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황산벌을 거쳐 사비성에 도착하였다. 이들 2개 부대를 빼면 순수한 전투부대는 18개 부대다. 18개 부대의 병력은 57,440명(수군 9,100명+지상전투부대병력 48,340명)이었다. 여기서 수군병력을 빼면 순수한 지상군 전투병력은 48,340명이다. 수군 9,100명 가운데 전투병력은 2,602명이었고 비전투병력인 수부(水夫)는 6,498명이었다.<sup>34)</sup> 따라서 신라가 백제지역에 투입한 순수한 전투병력은 50,942명(지상 전투병력 48,340명+수군 전투병력 2602명)이다.

아울러 신라가 백제지역에 투입하였던 20개 부대 중에서 황산벌 전투장(660.7.9)에 투입하였던 전투부대는 ① 대당 ② 상주정 ③ 귀당 ④ 하주정 ⑤ 서당 ⑥ 낭당 ⑦ 남천정 ⑧ 사설당(노당·운제당·충당·석투당) 등 8개 부대였다. 그 중에서 ① 대당 ② 상주정 ③ 귀당 ④ 하주정 ⑤ 서당 ⑥ 낭당을 지휘하였던 장군들은 【도표 9】와 같다.

【도표 9】 황산벌 전투 때 신라 6정급 부대와 서당급부대를 지휘한 신라 장군 성명

구분	大幢	上州停	漢山停	牛首停	河西停	下州停	舊幢	郎幢	貴幢	南川停
장군 직위 수	4인	4인	3인	2인	2인	3인	2인	2인	4인	장군직위 없음
장군 성명	庾信· 문왕· 양도· 문영	품일· 문충· 진왕· 흠돌	군관· 수세· 고순	술실· 달관	문훈· 진순	의복· 중신· 자간	문품· 진복	의광· 종정	흠춘· 진흠· 천존· 죽지	장군직위 없음

34) 윤일영, 앞 논문, 2007, 591쪽.

또한 신라가 황산벌 전투장에 투입하였던 8개 부대들을 지휘한 장군들은 18명(대당 4명, 상주정 4명, 해주정 2명, 서당 2명, 낭당 2명, 귀당 4명)이었다. 그리고 투입한 당급부대(100명급 단위부대) 수는 257개였고 총병력 수는 34,658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투부대 병력은 30,158명(대당·상주정·해주정·서당·낭당·귀당·남천정)이었고, 공성작전을 위한 전투지원 병력은 4,500명(노당·운제당·충당·석투당)이었다.

참고로 백제가 황산벌 전장에 투입한 병력 수는 5,000명이었다.<sup>35)</sup> 계백 장군이 거느렸던 부대의 병력이 5,000명이었다는 것은 이 부대가 신라의 6정급 부대 및 서당급 부대에 해당하는 1개 편제부대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백제가 660년 7월 나·제전쟁 때 동원하였던 전체병력은 60,000명이었다.<sup>36)</sup>

본고에서 필자는 황산벌 전투시 신라군의 지휘관 명칭, 투입부대 수, 전투부대 명칭, 부대편제, 투입 병력 수 등 전투서열을 밝혔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기 전투서열이외도 많은 군사사 과제를 선행연구를 해 왔는데 이는 황산벌 전투의 실상을 복원하여 오늘날 우리 군이 교훈으로 삼고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군은 사관학교나 군사교육과정에서 전쟁사, 군사사상, 군사이론을 간부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군인들은 누구나 전쟁사 학습을 중요한 기본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태면 군인들에게 전쟁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의 경전과 같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각국이 군인들에게 교육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1900년대 독일의 실증사학자

35) 『삼국사기』 권 제47 열전 제7 계백: “계백은 백제인이다. 벼슬하여 달솔이 되었다. 당나라의 顯慶 5년 경신(의자왕 20 : 660)에 고종이 소정방을 神丘道大總管으로 삼아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신라와 더불어 백제를 칠 때 계백은 장군이 되어 결사병 5천명을 뽑아 대항하였다.”

36) 『구당서』는 동이열전 백제조에서 “백제에 兵이 6만이 있다. 方은 十郡을 통괄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백제가 평시 현역 및 예비역을 합하여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수가 60,000명이라는 뜻이다. 백제는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가자원을 총동원하였을 것이다. 백제의 당시 국가위기상황으로 보아 가용한 60,000명을 모두 동원하였을 것이다.

델브뤽(Hans Delbrück)<sup>37)</sup>이 20여년에 걸쳐서 평생사업으로 복원하였던 고대 페르시아 전쟁(마라톤 전투)으로부터 나폴레옹 전쟁(워터루 전투)까지의 서양 전쟁사들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군은 우리나라의 고대 전쟁 및 전투사를 복원하여 교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전쟁 및 전투사를 서양의 마라톤 전투, 칸네 전투 등과 같은 수준으로 복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던 중 황산벌 전투를 복원해 보기로 하였다. 델브뤽이 언급하였듯이 전투복원은 전쟁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직업군인이나 전투부대를 직접 지휘·운용한 바 있는 지휘관 및 참모, 또는 현재의 군사교리를 체계적으로 수학한 군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아니면 델브뤽처럼 20여년 정도 장기간 군인들에게 군사학을 배우면서 이를 토대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런 제반 문제들을 감안하여 필자는 황산벌 전투복원을 통하여 미려하나마 군사사에 관심이 있는 장병은 물론 일반 연구자들에게도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여 일조하고자 한다. 최근 논산시에서 황산벌 전투를 매년 재현하고 있는데, 전국적 관심을 끌면서 지역 문화 사업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당시 필자는 병력수, 부대편제, 무기 및 장비, 전투대형, 진법, 전투배치, 부대기동 등 군사관련 사항을 복원하여 논산시의 복원사업에 일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전투의 복원은 군사사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11. 3. 5, 심사수정일 : 2011. 4. 25,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황산벌전투, 투입부대, 지휘관, 병력수, 신라부대, 김유신, 대당, 상주정, 하주정, 귀당

37) 민경길 역(델브뤽 저), 『병법사』, 「제1편 고대 그리스와 로마」, “델브뤽 Hans Delbrück의 《정치사적政治史的 측면에서의 병법사兵法史 Geschichte der Kriegskunst in Rahmen der politischen Geschichte》는 서기 1900년에 제1권, 제1권이 발간된 이후 서기 1920년 제IV권까지 발간되어 완성된 책으로서 병법과 전쟁사 연구의 기념비적 작품임과 동시에 실증사학實證史學의 대표 저작 가운데 하나다.”

<ABSTRACT>

## A Study on the Battle Order of the *Silla* Forces in the Battle of *Hwangsabeol*

- Committed Troops, Commander, and Number of Troops -

Yoon, Ill-young

The Battle of *Hwangsabeol* was the battle at *Hwangsanswon*(黃山原 : *Hwangsanswon*) between the *Silla* Forces and the *Baekje* Forces on the ninth day of the seventh month in AD 660 by the lunar calendar (August 20 according to the solar calendar) during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

However, in spite of a lot of concerns for this combat from the academic circles, the reality of The Battle of *Hwangsabeol* has not been restored yet.

With the aim of restoring The Battle of *Hwangsabeol*, this research is going to distinguish the name of the combat unit *Silla* troops sent in at the *Hwangsanswon* battlefield, and the name of a commander, and clarify the number of troops by combat unit, and a total number of troops.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d the two examples in which *Silla* sent in to the counter-*Baekje* fighting with the aim of inquiring into the name of the combat unit which *Silla* troops put to the *Hwangsanswon* battlefield.

The first example is the account that at the time of August in the 46th ruling year of *King Jinpyong*(AD 624) when *Baekje* besieged *Sokham Castle*(速含城), *Bongjam Castle*(烽岑城), *Aengjam Castle*(櫻岑城), and *Kihyeon Castle*(旗懸城), *Silla* put 4 combat units such as *Sangjujeong*(上州停) *Guidang*(貴幢), *Hajujeong*(下州停), and *Seodang*(誓幢), etc. The second example is the account that at the time of spring in February in the 8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1) when *Baekje* Revival forces attacked *Sabi Castle*(泗泌城), *Silla* reinforced its forces by adding *Daedang*(大幢),

*Nangdang*(郎幢), and *Namcheonjeong*(南川停) to the existing *Sangjujeong Guidang*(貴幢), *Hajujeong*(下州停), and *Seodang*(誓幢). As shown in the second example, the fact that Silla additionally sent in three combat units to the battlefield suggests that Silla might need a lot more combat units in attacking Baekje Sabi Castle than in attacking *Sokham Castle*, *Bongjam Castle*, *Aengjam Castle*, and *Kihyeon Castle*.

Here, it's necessary for us to look at the above-mentioned case that happened in the spring of February during the 8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1).

Silla fought a battle against the troops led by general *Gyebaek*(階伯) of *Baekje* at the *Hwangsanbeol* on July 9 by lunar calendar on their march to attack the *Sabi Castle* of *Baekje* in alliance with Tang on July 12 by lunar calendar in the 7th year reign of King *Muyeol*(AD 660). At that time, the size of the *Silla* combat forces might have been similar to that of the combat units which were put when the *Baekje* Revival Forces attacked the *Sabi Castle* in February during the 8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1).

The reason for such a guess is that the military objective(the occupation of *Sabi Castle*) of *Silla* troops on July 9(by the lunar calendar) marking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0) and that of *Silla* troops in the spring of July 9(by lunar calendar) marking the 8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1): in short, premising that *Silla* mobilized their combat units into *Baekje* territory in order to achieve the same military objective(the occupation of *Sabi Castle*) on July 9(by the lunar calendar) marking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0) and February by lunar calendar in the 8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1),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ize of mobilized troops might be almost the same.

The second reason for such a guess is that if *Silla* tried to attack the *Sabi Castle* in February in the 8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1), *Silla* might intend to put experienced combat units which had entered the Battle of *Hwangsanbeol* and the attack on *Sabi Castle* already in July by lunar calendar in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

In other words, *Silla* might try to put the combat units once again which had entered the Battle of *Hwangsanbeol* on July 9 by the lunar

calendar in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 and attacked the *Sabi* Castle on July 12 by the lunar calendar, in February in the 8th ruling year of King *Muyeol*. Like this, when making inferences based on the military objective and experience in war entry, it is estimated that the Silla-mobilized combat units which were put into the attack on *Sabi* Castle in February in the 8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1) and in July in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0) might be the same. Accordingly, the Silla-mobilized combat units into the *Hwangsanbeol* battlefield on July 9 in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0) might have been *Daedang*, *Sangjujeong*, *Guidang*, *Hajujeong*, *Seodang*, *Nangdang*, and *Namcheonjeong*, etc.

By the way, here is one more dispatched combat unit we have to consider additionally: that is the mobilization of *Saseoldang*. *Silla* entered the Battle of *Hwangsanbeol* on July 9 by lunar calendar in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0) and attacked the *Sabi* Castle on July 9 by lunar calendar in alliance with *Tang*. Then, *Silla* might need a castle-attacking unit to attack the *Sabi* Castle. Due to such necessity, *Silla* troops might definitely be accompanied by a specialized unit for attacking a castle. *Silla*, at the time of July by lunar calendar in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0), was possessed of the specialized units for attacking a castle such as *Saseoldang*(四設幢 : *Nodang*弩幢, *Wunjedang*雲梯幢, *Chungdang*衝幢, and *Seoktudang*石投幢). Accordingly, *Silla* troops might be accompanied by *Saseoldang*(四設幢) in time of the Battle of *Hwangsanbeol* and put it into the combat in time of attack on the *Sabi* Castle.

Thus, the number of combat units *Silla* put into the *Hwangsanbeol* battlefield on July 9 by the lunar calendar in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0) were 8, including ① *Daedang*(大幢) ② *Sangjujeong*(上州停) ③ *Guidang*(貴幢) ④ *Hajujeong*(下州停) ⑤ *Seodang*(誓幢) ⑥ *Nangdang*(郎幢) ⑦ *Namcheonjeong*(南川停) ⑧ *Saseoldag*(四設幢 : *Nodang*弩幢, *Wunjedang*雲梯幢, *Chungdang*衝幢, *Seoktudang*石投幢).

Meanwhile, this research made an analysis of the personnel records for generals in *Silla* based on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in order to

clarify the name of the generals who commanded their combat units dispatched into the *Hwangsanbeol* battlefield. As the result of analysis, this research identified 18 generals, who commanded the combat units including ① *Daedang* ② *Sangjujeong* ③ *Guidang* ④ *Hajujeong* ⑤ *Seodang* ⑥ *Nangdang* ⑦ *Namcheonjeong* which were put into the *Hwangsanbeol* battlefield on July 9 by lunar calendar in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0), as follows:

In short, there existed four generals belonging to *Daedang* including *Kim Yu-shin*, *Munwang*, *Yangdang*, and *Munyoung*, etc. ; the 4 generals belonging to *Sangjujeong* include *Kim Pum-il*, *Munchung*, *Jinwang*, and *Kim Heum-dol*; the 4 generals belonging to *Guidang* include *Kim Heum-chun*, *Jin-Heum*, *Cheonjon*, and *Juk-Ji*, etc.; the 2 generals belonging to *Hajujeong* include *Uibok*, *Junshin* etc.; the 2 generals belonging to *Seodang* include *Munpum* and *Jinbok*, etc., and the 2 generals belonging to *Nangdang* include *Uikwang*, and *Jongjeong*.

In addition, the number of Dang-grade units (100-soldier grade) which Silla put into the *Hwangsanbeol* battlefield was 257. The total number of military troops which were put into the *Hwangsanbeol* battlefield was 34,658, among which the number of combat support troops was 4,500).

For reference, the number of the combat troops *Baekje* put into the *Hwangsanbeol* battlefield was 5,000. That the number of military unit troops which general *Gyebaek* commanded was 5,000 means that this unit was one military unit corresponding to *6-jeong* grade unit and *Seodang*-grade unit. In addition, total numbers of the troops which *Baekje* mobilized in time of the *Silla-Baekje* War on July by the lunar calendar AD 660 were 60,000.

Key Words : The Battle of *Hwangsanbeol*, Battle Order, Committed Troops, Commander, Number of Troops, *Silla* troops, the *Silla* Forces, *Kim Yu-sin*, *Daedang*, *Sangjujeong*, *Guidang*, *Hajujeong*